

# Today's Chart

## 국내 소비, 편의점 매출만 늘었다

###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그림1. 연간 유통업체 연간 매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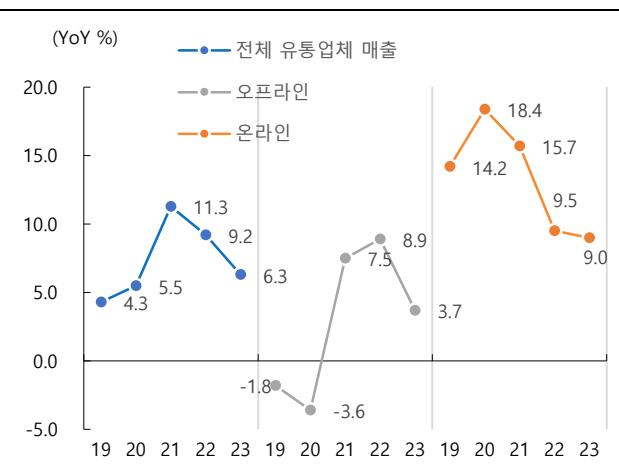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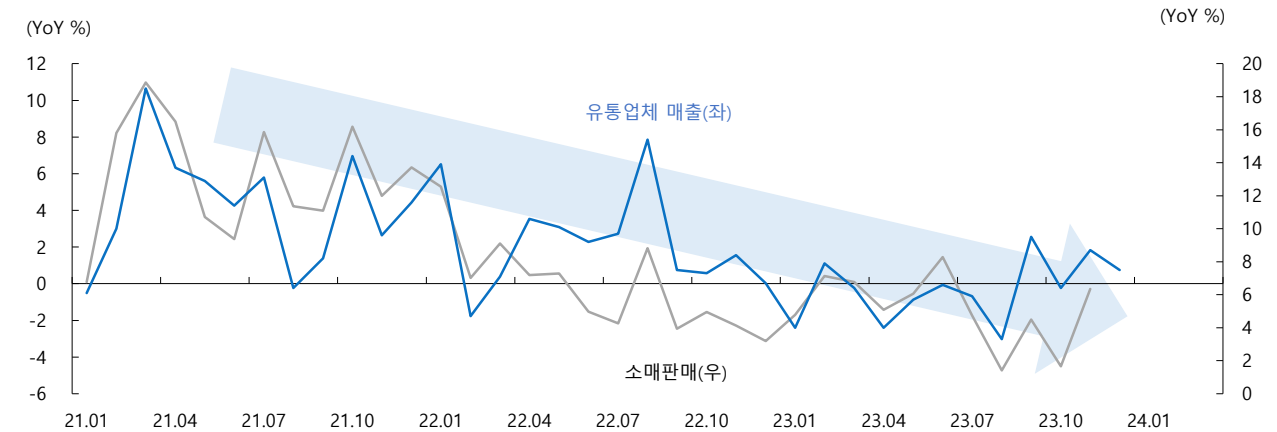


표1. 유통업체 형태별 매출 증가율 추이. 오프라인 중에서는 편의점 매출만이 높은 성장세를 보임

(단위: YoY %, 비중 %)	22년 연간		23년 연간	
	매출 비중	매출 증감률	매출 비중	매출 증감률
대형마트	13.4	-7.6	12.7	0.5
백화점	18.1	15.8	17.4	2.2
편의점	16.4	10.8	16.7	8.1
중대규모 점포	2.8	-2.5	2.7	3.7
오프라인 합계	50.8	6.0	49.5	3.7
온라인 합계	49.2	9.5	50.5	9.0
전체	100.0	7.7	100.0	6.3

그림2. 하향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소매매출 및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 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 지난해보다 둔화

- 23년 국내 유통업체 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6.3% 증가했지만 22년 9.2%에 비해 크게 둔화됨. 세부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간 매출액 증가율도 23년 각각 3.7%와 9.0%로 22년 오프라인 8.9%와 온라인 9.5%에 비해 둔화됨

- 특히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 둔화세가 눈에 띈. 18년과 19년 각각 -1.8%와 -3.6%에 비해서는 23년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의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임. 더욱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년 3.6%였음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수준으로 해석됨
- 오프라인 매출 중에 또 다른 특징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거의 증가하지 않고 편의점 매출만이 증가했다는 것임. <표1>에서 보듯 23년 대형마트 매출증가율은 전년대비 0.5%의 소폭 증가세를 기록함. 22년 대형마트 매출액이 -7.6%의 감소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증가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임. 백화점 매출 역시 전년대비 2.2% 증가에 그침. 22년 백화점 매출이 15.8% 증가한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지만 매출 증가율은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임
- 반면, 편의점 매출은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함. 22년 10.8% 증가했던 편의점 매출은 23년에도 8.1% 증가하면서 전체 오프라인 매출액 증가를 견인함
- 한편 온라인 매출 증가율은 22년 9.5%에 이어 23년에도 9.0% 증가함. 23년 전체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5%로 22년에 비해 1.3%p 증가하면서 50%를 상회함

■ 소비 둔화와 소비구조 변화에 주목

- 지난해 12월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만 보면 전년동월 7.5%로 11월 8.7%에 이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국내 소비사이클의 개선 시그널로 해석하기 어려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판매 증가율을 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역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앞서 유통업체 형태별 매출 증가율에서 보듯 오프라인 중 편의점 매출만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은 소비 경기가 미약함을 뒷받침함.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 등으로 절약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 최근 소비심리가 그나마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은 다행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고용시장 둔화 조짐 그리고 여타 증시에 비해 반등세가 미약한 국내 증시 흐름 등은 소비경기 반등을 제약할 여지가 있음. 수출 경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투자 및 소비 등 내수 경기의 부진은 국내 경기 회복흐름에 장애요인이 될 것임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